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15일)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5월 15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께 헌등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불자 의무"

조계사 등 전국 사찰, 5월 15일 봉축법요식

종정 성파대종사 직접 법어 내려
진우 스님, '선명상 보급' 약속해
윤석열 대통령 연속 2년째 참석
尹 "선명상,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5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기흥 리더스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에도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대통령이 2년 연이어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준비된 원고 대신 즉석에서 설한 봉축 법어를 통해 변함없는 진리를 깨달아 각자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화합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각자의 마음 등불을 켜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 이 세상을 밝게 해야 한다"면서 "이 자리의 사부대중과 불자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깊이 명심하시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임무"이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의 개혁일 것"이라고 진단한 진우 스님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의 영역을 계발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불교의 전통인 조사(祖師) 화두선(話頭禪)에 기반해 현대적 명상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하고 세계 정신문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가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장애나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 각 2인을 초청했다. 장애인 대표로는 이종희·김인애 씨가, 이주민 대표로는 이명희(베트남)·아키야마 쓰카코(일본) 씨가 헌화했다.

이와 함께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8년 불자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최영철(작곡가), 고광록(변호사), 구본길(펜싱선수), 임혁(배우), 김동준(가수·배우) 씨가 선정·수상했다. 구본길 선수는 훈련 일정 관계로 어머니가 대신 수상했다.

현대불교 창간 30주년 기념 공동캠페인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소녀에게 응원을

"생리대 나눔 후원으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본지-다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후원 캠페인 MOU

다나, 생리대 후원 사업 진행
본지, 사업 홍보 · 확대 동참

창간 30돌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혜도 스님, 이하 본지)가 (사)다나(이사장 탄경 스님, 이하 다나)와 함께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나눔 지원 사업을 펼친다.

본지와 다나는 5월 14일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 사업-소녀에게 응원을' 공동 캠페인을 진행키로 협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을 절감한 다나는 오래 전부터 창원·진주 지역 아동센터에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왔다.

소외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 '생리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이 비치되면서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지원되기 시작됐다.

2021년 4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대상 선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보편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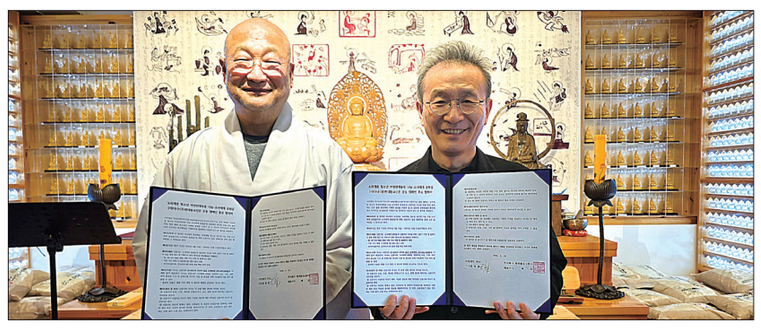
지금도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적지 않은 종교 및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단체 중 불교단체는 '다나'가 유일하다.

다나 이사장 탄경 스님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국가별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을 보면 한국은 개당 331원인데 반해 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 캐나다 202원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서 "통계를 보니 서울시 여성청소년 중 '월경용품 구입을 비싸서 망설인 적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진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100가구 정도에서 사용할 물품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은 "묵묵히 노숙자 무료 급식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나눔, 국제 구호를 펼쳐 온 다나의 자비행에 깊이 공감해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본지 기사를 통해 다나의 자비 나눔 사업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을 응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다나 이사장 탄경 스님과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이 5월 14일 협약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하안거 결제 법어 8면

봉축휴가 관계로 다음 주는 휴간합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992쪽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구산선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시는 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택배비 수신자 부담)

〈태고화상어록〉은 불교 배척 운동의 핵심 인물인 이색과 정몽주가 서문과 발문을 쓴 책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확철대오한 선법문은 다 걸러지고 대신들에게 지어준 당호에 쓴 송(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선 대원선사님께서 그 송들 속에 스며있는 태고 보우국사의 깨달음의 경지를 도움말로 드러내어 본 〈태고 보우국사 어록〉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신청 문의 010-3880-8980 (증연스님)

도서출판 문젠



〈해동전등록〉 결집을 위한 '구산선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청합니다

농선 대원선사님께서는 전등록 30권, 선문염송 30권, 화엄경 81권을 역경한 혜안으로 90의 연세에 이생 마지막 서원인 한국의 〈해동전등록〉을 편찬하고자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맥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 의해 해동 신라로 전해져 구산선문으로 계승되었고, 57조 태고 보우국사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중국 선사상에 못지않은 우리 해동의 선풍이 지금 결집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농선 대원선사님께서는 "〈해동전등록〉은 내 개인만의 소원이 아니고 한국 불자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써내고자 하니 자료만 찾아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불제자님들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한국의 미래 불교를 위해서 번역본이나 원본을 보내주시거나 , 법어록의 제목이나 소장하는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이 거룩한 불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신청 문의 010-8670-1445 (문젠 출판 교무부)